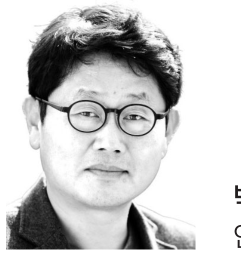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미연(未然)에 방지(防止)



박 재 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장마철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강수량이라고 발표했다. 승강기 침수와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장마철 피해는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일방통행로를 잘못 인식하고 진입하여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축구아카데미 대표, 명품 백 알선수수에 대한 공방으로 촉발된 정치권 싸움,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연예인, 눈뜨면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며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을까를 질문해 본다. 미연에 방지할 수만 있었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 때문이다.

미연(未然)은 아직까지 일이 터져서 그렇게(然) 되지 않았다(未)는 뜻이다. 미연에 방지하라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여 일의 발생을 막는다는 것이다. 하수는 사고가 터져도 해결하지 못하고, 중수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해결하고, 고수는 사고가 나기 전에 해결하여 사고 자체를 막는다.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고수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편작(扁鵲)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의술을 갖고 있었던 명의였다. 편작에게는 형제가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의술에 능통했다고 한다. 형제 중에 누가 제일 의술이 뛰어나냐는 질문에 편작은 큰형이라고 대답하였다. 큰형은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미연에 예방하니 의술이 가장 뛰어나고, 둘째형은 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치료를 해주고, 자신은 환자의 병세가 깊어 고통을 호소할 때 비로소 치료하기 때문에 가장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자신이 명의라고 세상 사람들에 알려져 있는 것은 병이 나서 고치는 것만 보고 그러는 것이니 진짜 고수는 병이 나기 전에 미연에 치료하는 큰형이라는 것이다. 편작은 이미 발생한 병만 고치는 하수라면 편작의 큰형은 예방의학을 실천한 미연의 고수였던 것이다.

중국 원(元)나라 좌극명(左克明)이 편집한 '고악부(古樂府)'에는 군자의 능력을 '미연(未然)에 방지(防止)'라고 정의한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조심하고 조치하여 예방한다는 것이다. '군자는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다(君子防未然, 군자방미연). 군자는 남들의 의혹을 살만 일을 하지 않는다(不處嫌疑間, 불처혐의간).'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 매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모자를 만지지 말아야 도둑질한다는 혐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고위층 인사들은 남의 의심이나 의혹을 살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터지고 혐의를 받기 전에 미연에 조심해야 한다. 명품 백을 그냥 준다고 덥석 받고, 법인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다면 미연의 방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미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기미(幾微)는 일이 발생하기 전에 나타나는 미세한(微, 미) 조짐(幾, 기)이다.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조짐이 있다. 사고가 자주 나는 도로에는 사고의 기미가 있고, 침수가 자주 되는 도로에는 침수의 기미가 있다. 기미를 알고 미연에 방지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작은 사건과 조짐이 선행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큰 사고는 예정된 사고이며,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은 사고와 기미가 선행한다는 것이다. 고수는 기미를 미리 읽고 일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얼마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몇 가지 나쁜 징후의 수치가 나타났다. 큰 병나서 고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다짐을 해 본다. 병나고 나서 병원 찾는 것은 하수이기 때문이다.

종교칼럼

그보다 더 좋고 길이 남을

황 성 호
신부
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가끔 '행복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 불행한 것 같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좀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럴 여유가 없어서 어쩌지!'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이런 하소연에 '정말 행복하고 싶은 것일까? 삶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살고 싶은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사제직을 준비하던 신학생 시절, 영성면담 신부님의 질문이 떠오른다. '우리는 살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인지?'라고 신학생들에게 삶의 본질에 대한 화두를 던지셨다.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과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필수적인 것과 필요한 것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갈등 안에서의 선택을 통해 행복한 삶 또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부족함 없이 풍요롭고 남 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건강을 돌보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은 운전하느라 바빠서 주유소에 갈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음과 같다. 상식이지만, 우리가 쉽게 범하는 어리석음이기도 하다.

현재의 삶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묻지마 폭행과 같은 범죄,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돈이면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의식, 다르다거나 천한 일을 한다고 '제노포비아'(Xenophobia)와 같은 혐오 의식을 만들어내는 선민적 우월의식 등,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초래되는 병폐 현상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죽을 힘을 다해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보다 더 숭고하며 아름답고 고귀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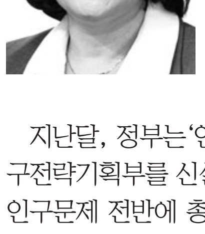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오래 기억되는 인물들이 있다. 나라를 위해 그리고 모두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고 희생했던 이들이다. 그런데 무엇이 자기 안위보다 모두를 위한 삶과 희생이라는 행동으로 이끌었던 것일까? 이들이 송두리째 내놓았던 삶에서 공통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삶의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다. 삶의 본질적인 것을 보호하고 살아가는데 가치를 두었고, 자신은 물론 모두가 사는 삶을 택했다.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에도 자신보다 타인과 모두를 위해 투신했던 이들이었다. 그래서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그들의 지향점, 삶을 이끌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온몸과 마음으로 전파했던 바오로 사도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또한 감옥에 갇힌 이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자들, 예수께서 사셨고 보여주셨던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세상을 위해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 이익에 집착하지 않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분열되지 않도록 온몸으로 희생했던 이들이다.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보이지 않는 가치와 사람을 살리고 서로가 행복의 길을 알았던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기억되는 이들도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이를 살았을 때 훗날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빠르다. 소중한 것들과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것들이 쉽게 짓밟히고 무너져내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오로 사도의 "그보다 더 좋고 또 길이 남는 재산"의 말씀을 되새기자. 그보다 더 좋은 세상과 모두가 함께 살아가도록 이끄는 길이 남을 재산을 추구해보면 어떨까?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기 고

광주다움 인구정책의 방향



김 경 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지난달, 정부는'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생, 고령화, 이민 정책 등 인구문제 전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출생률을 반등시켜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간 예산권과 집행권이 없었던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체제에 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부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 비상사태'에 걸맞은 대응이라기에는 기존의 인구정책 방향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성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등은 필요한 정책이지만 중산층, 정규직, 맞벌이 부부 중심의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아 왔다. 비정규직,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어렵고 주택 구입을 하기 어려운 계층은 대출금 및 이자 지원이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정책은 일시적 출생률 반등의 효과를 누릴 수는 있으나 천문학적 투자에 비해 그 실효성과 지속성이 미비하다고 비판 받아 왔다. 구조적 변화 없는 현금성 지원 정책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인구정책의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에 따라 어떻게 예산을 배정하고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인구정책의 해법은 명백하다. 출산당사자인 청년과 여성을 단지 인구 숫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기존의 인구대책은 실패했다. 청년과 여성의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해져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아이를 낳으면 지원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여성이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무한 경쟁의 교육과 높은 사교육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사기를 걱정해야 하는 주거 불안, 성별임금격차, 만연한 성차별과 젠더 폭력, 결혼 및 출산과 함께 당연시 되는 경력단절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과 여성들은 연애, 결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구정책은 청년과 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긴 호흡의 종합대책이어야 한다.

광주시도 최근 출생률 감소폭 및 청년인구유출 증가와 정부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민선 8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방향은 현재로서는'아이키움 2.0'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핵심은 현금성 지원정책 보다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라는 사회문화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다. 가정, 학교, 기업, 마을을 여성가족친화적 구조와 문화로 재편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의 안정적인 삶, 여성의 경력중지 예방, 일·생활균형 등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는 중소기업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률 향상을 가져왔고 초등 부모 10시 출근제도는 근로자의 돌봄시간권 확보를 통해 양육권 및 일·생활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출범 초기부터 청년정책담당관을 두고 청년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지원 사업, 청년정책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는 이미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은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서로 돌봄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광주다움 인구정책 또한 아이를 낳아 키우고자 하는 모든 시민이 계층, 성별, 인종(민족), 고용형태, 혼인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산 및 양육권을 누리고 아이의 성장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성차별의 해소 없는 저출생 대책,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 하에 광주시정의 방향에 발맞춰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광주전략산업과 연계한 여성(청년) 일자리 발굴, 남성이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발굴 등의 연구사업과 임신,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종합 정보 제공 플랫폼인 '광주아이키움'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문화 사업, 여성가족친화마을 발굴 및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광주시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社 說

예측불허 '도깨비 장마' 더 철저한 대비를

예측이 불가능한 '야행성 폭우'가 일상화 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9일 밤부터 10일 새벽 사이 전북과 충청에 쏟아진 물폭탄으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논산에선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가 침수돼 남성이 사망할 정도로 한밤 폭우가 도심 일상까지 위협하고 있다.

군산에는 시간당 146㎜의 비가 내려 기상 관측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폭우"라고 밝혔다. 올해 장마는 한밤중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도깨비 비' '홍길동 비' '스텔스 비' '야행성 비'라는 별칭이 생겨날 정도다. 기상청은 멈춰선 장마전선에 저기압이 유입돼 물폭탄을 키웠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이상기후로 인해 이런 야행성 폭우가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장마기간 광주·전남에는 아직까지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물폭탄이 떨어질지 모른다. 1998년 7월 31일 순천에는 시간당 145㎜의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진 적이 있다. 2022년 8월 6일부터 사흘간 광주·전남에 600㎜가 내려 10명이 숨지고 3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다음날인 8월 7일 밤 폭우로 곡성에선 도로 공사 현장 산사태로 토사가 마을 주택을 덮쳐 5명이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잠을 자는 새벽시간대에 침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소부터 집중호우에 취약한 위험 요소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올해부터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참고하는 것도 권할 만 하다. 하지만 기상 이변이 일상화된 상황에 맞게 재난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피해 예방법이 될 것이다. 자치단체는 우수관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 미리 미리 점검하길 바란다.

상급병원 적자라지만 간호사만은 채용해야

의·정 갈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병원인 상급병원들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간호사 채용으로까지 번졌다.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상급병원들이 환자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감안해 올 하반기 간호사 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추가 지출만이라도 막기 위해서, 간호사 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이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광주지역 의료계의 정상화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의 길을 열어줬지만 병원으로 돌아갈 전공의 비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서도 특례를 보장했지만 역시 의대생들도 상당수가 유급을 택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을 강행하면서 상호 신뢰를 잃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라 환자가 급감하면서 수입이 줄어든 상급병원들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포기, 광주지역 간호대학과 간호전문대 등 졸업예정자들의 취업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미 선발해놓고도 발령 대기중인 인력이 상당수여서 자칫 장기간 간호사 채용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병원들은 의료대란 이전의 수준으로 환자 수가 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만 초기보다 병원이 안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병원이 의료기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역기업인 것도 사실이다. 상급병원들은 지난 수십 년간 병원을 사랑하고 믿어준 지역민들을 위해 올 하반기 소수라도 간호사를 채용함이 마땅하다.

無 等 鼓

'더, 만, 도'

1989년 고입 선발 연합고사를 앞둔 광주지역 한 신생 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체 시험을 봤다. 신생학교가 단시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잦은 시험과 과도한 '사랑의 매'였다. 교실마다 '타악~'하고, 마른 장작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들의 비명도 이어졌다. 문제를 틀린 수에 따라 매를 맞는 날이 늘 수록 모의고사 학교 평균은 치솟았고, 해당 교사는 교장 선생님의 월요일 애국조회 말씀의 주요 등장인물로 호명됐다. 덩달아 시험을 보는 과목도 늘었으며, 사춘기 아이들의 엉덩이는 교문 앞 능소화처럼 더욱 붉게 멍들었다.

아이들의 잔머리도 진화했다. 애매한 문장이 많아 자칫 알고도 틀리기 쉬운 일부 과목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특정 단어나 조사가 등장하는 문항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아이들 사이에서는 '더, 만, 도'의 법칙이 아폴로눈병처럼 퍼지기 시작했다. 상황과 조건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더'가 나오는 문항, 정답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문제에 가끔 등장하는 제한하고 한정하는 '만'. 그리고 추가로 요구하거나 동등한 위치나 조건을 부여해주는 '도'가 등장하는 문항이 정답일 비율이 높다는 것. 효과는 있었다. 정답으로 이어지는 경험담이 늘 수록 아이들은 신념처럼 '더만도'를 외쳤고, 어차피 틀릴 문제 '더만도' 문항에 정답을 표기하면 채점하는 순간까지 마음은 편했다.

여야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말의 성찬'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문자'를 두고 설전을 주고받고 있다.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사과 의사를 밝힌 김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는지 여부를 두고, 후보들이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김두관 전 의원이 당 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말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기억도 가물거리는 시절, 사춘기 소년이 문제를 해결했던 최후의 수단 '더만도'가 정치판에서도 유효하다면, 아마도 "'더' 잘하겠다" "저'만' 할 수 있다" "그것'도' 해 주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겠다.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논설실장 **蔡熙鍾**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